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263

JCCT 2020-2-33

‘경성탐정 이상’의 ‘상상된 역사’로의 여행

Journey to 'Imagined History' by 'The detective of Gyeongseong, Lee-sang'

강혜경

Kang, Hyekyung

요약 한국역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당위적 결론은 종종 역사적 상상력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성탐정 이상〉도 근대역사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역사추리소설장르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성탐정이상〉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 민족주의에 기반 한 독립의 당위성, 근대문명 등은 일제강점기 역사문화 콘텐츠에서 눈에 익은 구도이다. 이는 ‘상상의 공동체(민족)’에 대한 대중의 현재적 욕망을 현재로서의 역사, 현재의 사회적 갈등이 투사된 역사로 역사문화콘텐츠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다룬 콘텐츠들에서 역사, 역사적 사실, 허구는 뒤섞여지며 새로운 ‘역사적 상상’을 만들어 낸다. 실제로 과거의 사실은 하나지만, 역사가가 만드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듯이 역사문화콘텐츠의 역사적 상상은 다양하다. 아직까지 역사학은 미래를 위한 상상력으로까지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한 역사쓰기는 ‘가능성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경성탐정이상, 역사추리소설, 역사문화콘텐츠, 역사적 사실, 상상된 역사, 가능성의 역사

Abstrac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 Korean history, appropriate conclusion often overwhelmed the historical imagination, and 〈The detective of Gyeongseong, Lee-sang〉 also pointed out that it shows a similar pattern in spite of the history detective novel genre that emerged with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modern history. Historical facts showing in 〈The detective of Gyeongseong, Lee-sang〉, the legitimacy of independence based on nationalism, and modern civilization are well known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the reason why applied 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s the history as is for current desire of the public to the imaginary community(nation), and as the history which current social conflicts are reflected.

History, historical facts and fiction are intermingled in the contents of history, and it is creating a new 'historical imagination'. As a matter of fact, there is only one fact of the past, but the historical imagin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is diverse as there is not one historical fact made by historians. History has not yet gone to the imagination for the future, but writing history through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will create a 'history of possibilities'.

Key words :The detective of Gyeongseong, Lee-sang, History detective novel, Historical facts, Imagined History, History of possibilities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주저자)
접수일: 2019년 11월 25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0일

Received: November 25, 2019 / Revised: December 10,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Corresponding Author: cosmopro@sm.ac.kr
Dept. of History & Culture, Sookmyung Women's Univ, Korea

I. 서론

한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식민지이자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해방 후 분단이 되고 우익이 주도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처리 문제 등 식민지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지 못했던 독립에 대한 당위성과 반공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시기는 근대국가건설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인 동화정책은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적지 않은 흔적들이 한국인들의 삶속에 남아 있다. 한국사에서 식민지의 경험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면서 제국에 대한 증오는 현실의 국가관계와 맞물려 항상 잠재되어 있으면서 돌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역사콘텐츠들은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부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들은 역사학이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대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들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역사에 기반한 역사소설과 역사추리소설은 역사문화콘텐츠의 한 분야인 창작콘텐츠로 볼 수 있다.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창작은 드라마 시나리오, 소설, 영화시나리오, 뮤지컬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재희가 쓴 <경성탐정 이상>도 역사추리소설로 역사문화콘텐츠 가운데 창작콘텐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문화콘텐츠의 소비자인 대중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작가나 제작자들은 역사적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하기보다는 당위적인 결론으로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영화 암살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족주의 서사와 블록버스터 시각 체제의 결합은 대단위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동력이었다. 영화는 1930년대 만주, 상해, 항주의 이국적인 풍경과 경성의 미즈코시 백화점 등 근대의 경험, 절대 순수 악으로서의 일본 제국주의자 및 친일파, 그리고 절대선으로서의 독립군이라는 전형성을 보여주었다.^[1]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실(사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지만, 소설이나 영화 등 역사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은 과거의 사실과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빈 공백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채우고 있다. 한국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당위적 결론이 상상력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

데, <경성탐정 이상>도 근대역사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역사추리소설장르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등장과 함께 역사쓰기가 다원화되면서 역사적 사실보다 허구가 더 확실한 진실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가 역사 서술보다 더 진정성 있는 역사적 사실을 전해줄 수 있으려면 ‘상상된 역사’가 아니라 ‘가능성의 역사’를 재현해야 할 것이다.

II. 역사쓰기 다원화의 한계와 ‘상상된 역사’

역사는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다. 역사학자들은 사료를 통해 과거의 역사(사실)를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낸다. 사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누락된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이 되지 못한다. 사료란 “빈틈과 공백이 가득한 조각난 파편”들인데, 이 불완전한 조각들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가의 “상상적 추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 이때 역사는 마치 수사관이나 탐정과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근대 역사학의 한계를 비판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에서는 실증적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거부하고 허구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해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문학적으로 수용한 역사추리소설은 추론에 의지해 ‘가능성의 역사’를 재현하고자 한다.^[3] 이처럼 역사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근대 역사학의 쇠퇴와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등장으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해체하고 가능성의 역사를 탐색하면서 등장하였는데 반해, 한국역사추리소설들은 근대 역사학적 사실들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

반면 역사소설은 역사적 실재의 객관성과 당대적 리얼리티의 제약으로부터 한걸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역사를 허구화하고 현재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역사소설에서 문학적 재현의 준거로 작용하던 역사적 사실의 권위가 약화됨에 따라 역사의 기록들에 개입하여 진실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허구적 상상력의 기능성과 의의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소설 장르는 이를 잘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5] 그러나 역사소설과 역사추리소설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장르적 차이나 특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역사’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보여 진다.

한국 역사추리소설은 역사적 과거를 서사의 배경으로 삼고 역사상의 실존인물들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역사소설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지만, 역사소설과는 달리 근대역사학의 역사적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저술들에 현재의 정치적 쟁점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듯이, 작가가 선택한 시대와 문체적 인물과 사건들 속에는 작가의 현재적 관점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경성탐정 이상>의 경우도 이상과 구보 등 당대의 인물들과 역사가들이 구성해 놓은 역사적 사실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상상의 공동체(민족)'에 대한 대중의 현재적 욕망을 현재로서의 역사, 현재의 사회적 갈등이 투사된 역사로 역사추리소설물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능성의 역사'를 이미 '상상된 역사'속에 가두어두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III. 상상된 '경성탐정 이상과 구보'

김재희가 쓴 <경성탐정 이상>의 탐정은 1930년대 천재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이다. 이상은 그의 기이한 행적과 의문스러운 죽음 등이 난해한 작품과 함께 매력적인 소재가 되어 일제강점기 역사문화콘텐츠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김재희도 이상이 시와 소설,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미스터리 소설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며, 구보 박태원은 이상을 도우면서 사건의 해결을 돕는 조력자 역할에 적격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6] 이 소설은 이상과 구보 외에도 일제강점기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상기시키며 소설 속 '경성'을 만들어 낸다. 일제의 강력한 물자 통제령에도 불구하고 복단장 내에 보화각을 건축하여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설립한 간송 전형필과 나비연구가였던 석주명 박사, 자전거의 명수였던 엄복동,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권기옥 등이 등장해 식민지 시절 생활상과 사회상을 여러 사건들과 촘촘하게 엮어나간다.^[7] 심지어 명성황후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더해지면서 대한제국 황실까지 재현 된다. 소설이 재현하는 1930년대는 당시의 실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사실에 해석을 더하여 구성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구성한 것으로 당시의 역사적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여 마치 사실을 재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경성탐정 이상>은 식민지 시절이라는 배경아래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적대감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고, 이상의 행동은 탐정에서 영웅으로, 나아가 애국자로 거듭난다.^[8] 작가도 구보의 입을 빌려 "암울한 현실 속에 독립군이 되어 인생을 걸거나, 사상이 깃든 문학을 발표해 독립심을 고취하든가 아니면 낭만시를 지어 새로운 희망을 일깨워준다든가 하는 좋은 길을 외면하고 인류에 위배되는 범죄를 벌인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다."^[9]고 하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못했지만 그 당위성을 '좋은 길'로 표현하고 있다.

<경성탐정 이상>은 도시화가 시작된 경성의 근대적 풍경이 빚어내는 1930년대를 세심하게 재현한다. 식민지 동화정책에 병들어가면서도 근대 문명이 낫설지 않은 중층적인 도시가 경성이었다. 작가는 "경성시대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사람들은 꿈을 잃고 울분을 참고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종로 네온사인 앞에서 걸인들이 굶어 죽어가도 누구하나 손을 내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토록 어둡고 불운했던 시대에도 희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동차, 축음기, 피아노, 타자기, 전화기, 백열등, 골프채, 립스틱, 스타킹에 이르기까지 신기한 서양문물이 조선 땅으로 물밀듯이 들어왔고, 신문물로 가득 찬 박람회와 백화점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라면서 근대 문명에 익숙해지는 경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경성은 사랑과 낭만과 꿈과 희망 그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가 공존하는 곳이지만 암울하고 처절한, 공포와 잔인함과 추악함이 도사리는 어둠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경성도 다른 도시들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각종 범죄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탐정 이상이 추론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경성탐정 이상>에 등장한 역사적 사실, 민족주의에 기반 한 독립의 당위성, 근대문명 등은 일제강점기 역사문화콘텐츠에서 눈에 익은 구도이다. 근대 민족주의에 기반 한 상상으로 이들 역사추리소설들은 대부분이 민족주의적이면서 한국 역사에서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찾아내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이상이 등장하는 다른 역사문화콘텐츠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개봉한 영화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과

2013년에 방영된 단편 드라마 <이상 그 이상>도 추리극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시인 이상을 ‘박제된 천재’가 아니라 냉소와 절망 뒤에 민족과 시대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지닌 인물로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시선이 보인다.^[10]

역사를 다룬 콘텐츠들에서 역사, 역사적 사실, 허구는 뒤섞여지며 새로운 ‘역사적 상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실재로서 과거의 사실은 하나지만, 역사가가 만드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듯이 역사문화콘텐츠의 역사적 상상은 다양하다. 역사가의 사실과 문학이라는 허구의 경계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문학과 역사분야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 곧 개연성이나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있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아니면 산문을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헤로도토스의 작품은 운문으로 고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율이 없든 그것은 역시 일종의 역사임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많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2006, [시학], 문예출판사, 63쪽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의 판단기준은 인간 삶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답을 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역사가보다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문학을 통해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문화콘텐츠의 등장과 함께 이미 역사쓰기는 다원화되었다. 사실에 기반 한 가상공간을 만드는 데서 사실의 상상에 기반 한 가상공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서사화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역사’를 서사화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진리 즉 인간 삶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현실을 다룬 역사문화콘텐츠는 현실세계와 미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과

급력을 가질 수 있다. 현실 문제를 다룬 역사문화콘텐츠를 접한 수신자들은 참여를 통해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변화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역사서술이 사실 내지 실재라는 주장에 대한 반발과 회의에서 출발하여 역사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역사쓰기로 새로운 역사적 상상을 재현해내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가 때로는 기록이나 학술논문보다 과거에 대한 진실을 더 전할 수도 있으며, 이는 긍정적 의미의 새로운 역사서술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은 허구이면서 때로는 역사기록보다 더 사실적인 것으로서 수신자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을 지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11] 역사문화콘텐츠 작가들이 다양한 이야기 방식으로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 사이의 공백을 서사화하고, 새로운 역사적 상상을 동원하여 역사서술의 공백을 설득력 있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과거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진리를 창조하는 상상력을 키우는 학문으로 변모해야한다고 까지 주장한다.^[12] 아직까지 역사학은 미래를 위한 상상력으로까지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한 역사쓰기는 ‘가능성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추리소설 <경성 탐정 이상>의 상상된 역사로의 여행이 ‘가능성의 역사’를 경유하여 상상하는 역사로의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E.H.카아의 말처럼 역사가와 역사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모두 과거와의 대화를 한다. 이를 통해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지만, 역사문화콘텐츠 작가들은 실재로서의 역사, 역사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상상력 부재를 메꾸는 ‘가능성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won, Eunsun, Representation of History and Resistance - Focused on <Assassination> and <Dongju: The Portrait of a Poet>, JCCT Vol.5

- No.3 2019, p187
- [2] Kim, Hyunsik, For 'What Is History' in the Postmodern Age, Humanist, 2006, p.56
- [3] Kim, Young-sung, Narrative desire of the mass projected on historical detective novel of Kore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Vol.43 No.2008, p219
- [4] Park, Jin, History Thriller as a Genre and Its Korean Particularity,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Vol.0 No.32, 2006, p336
- [5] Park, Jin, Literariness in Historical Narrative and New Trend in Historical Ficti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No.141 2005, p100
- [6] Kim-jae-hee, The detective of Gyeongseong, Lee-sang 2, Sigongsa, 2016, p 500
- [7] Oh, Hey-jine, The Trace of Historical-Mystery and the Role in Lib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0 No.2, 2015, p151
- [8] Oh, Hey-jine, The widely read genre of the parody mystery - Focusing on the novels of Kim, jaehee and Yoon, heawhan -,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62, 2015, p456
- [9] Kim, jaehee, The detective of Gyeongseong, Lee-sang, Sigongsa, 2012, p81
- [10] Son, miyoung, A Study on Yi Sang Representation in Media -Focusing on the cinema <Secrets of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and the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JCCT Vol.5 No.4
- [11] Kim, hyunjin, 'Possible Worlds' Theory and narrative of faction,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Vol.0 No.16, 2016, p 39
- [12] KIM, Gi-Bong, History and Truth - History Writing and History Making ,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The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Vol.0 No.38, 2018, p273